

지역 소식통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사)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이재희)가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 서백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제전위원회 이사, 대의원, 자문 위원 등 170여 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축제 시작을 알리는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우리나라 수도작 중심의 전통농경문화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 5개 분야 54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종일 생기발랄한 김제의 풍성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청렴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청렴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악위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의해 간부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측정, 평가를 위해 구성된 기관장 주관 협의체인 '청렴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 청렴정책추진단은 김제시장 이하 부시장, 국단소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청렴도 향상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국단소별 감질 근절을 위한 역할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감질 근절 역할과제로 제시된 칭찬의 날, 감질근절 톨링페이퍼, 리버스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의 역할과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비교해 국단소 간 보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 논의했다. 향후에도 역할 과제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해 애로 사항과 잘된 점 등을 청렴나눔방에 공유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봉동폐기물 소각장 강력 반대”

유희태 완주군수 “청정 완주 만들 것”…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 의견 밝혀

유희태 완주군수가 봉동을 구입리 일대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는 현재 봉동을 구입리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12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동을 및 삼례읍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아파트마다 전단지 배포 및 SNS를 통한 단체 행동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열린 업체 주관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극렬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봉동을 구입리 일대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이런 상황에서 유 군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강조했다.

업체가 신청한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이미 둔산리 아파트단지 6,307세대, 삼봉지구 3,365세대, 조성예정인 미니북합타운 3,354세대, 삼봉2지구 6,940세대 등 인구가 밀집돼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전주공원묘지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지 인근에는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추후 그 주변지역으로 수소기반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소각장으로 인해 완주군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유 군수는 “청정한 완주 만들기는 공약사항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 군수는 운주면민의 큰 여망인 말골재 인근 둔사매입과 소양면 축산농가의 냄새저감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20년간 약취 문제로 주민 갈등을 일으켰던 부여읍종 양돈장 부지를 매입해 종지부를 찍는 등 청정 완주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부시장, 지역활력타운 부단체장 회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 모색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희욱 부시장(사진)이 지난 24일 세종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활력타운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지역의 의견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주관으로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주요 연계사업 부처 및 2024년 공모 선정된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활력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있는 거점 조성 과 명품화를 위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해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가기로 협의했다.

회의는 △국토부 등 연계 사업 부처 협조사항 발표, △지자체 사업 추진계획 발표, △지자체 토론 및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사업 목적 공유 및 차별화 전략, 후속 일정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활력타운의 규모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올해 안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욱 부시장은 “김제시가 정부의 다부처 연계사업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정확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청소년들 방학 맞아 제과 배우기

청소년문화의집, '꿈빛 파티시에' 매주 수요일 진행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꿈빛 파티시에'를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제과의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9회기로 진행된다.



간사의 지도에 따라 초급에서는 콘스타트, 중급으로는 수제 사브레, 고급 과정으로는 크림 북세 등 다양한 디저트를 직접 만든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소년은 “다양한 제과를 단계별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장, 폭염 속 축사 현장 점검 '구슬땀'

성덕면 한우농장 찾아… 축사 전반 안전점검 실시 등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25일 성덕면 한우농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우 사육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25일 성덕면 한우농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우 사육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정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축사 내 폭염 등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 상태·작동 등 축사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주와의 면담을 통해 폭염 등 재해 예방과 질병 방역 등의 농장

대비 사항을 점검하고, 농장경영에 있어 가족의 시세, 사료값 부담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여름철 폭염 등 재해 발생 시 축사 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축산농가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선제적인 점검과 보완이 요구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여름철 폭염 등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염은 매년 가축 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재해이므로, 축산농가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 치매환자·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

김제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돼 약 2,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읍면동의 노인 인구 수, 치매환자 수와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수 등을 고려해 3개 동 5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 중이다.

성리·성서마을, 검산동 주공1단지아파트)이 우수안심마을로 승인됐으며, 2월에는 요촌동(수각·실버타운 마을)을 신규 치매안심마을로 추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안정망 구축, △도서관 연계 실버책놀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로 기억충전 행복만땅 프로그램을 통한 △느린 카페 운영, △특수노인과 함께하는 건강·인지요리 프로그램, △보고 즐기고 기억하는 문화 체험 등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우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월 2개 치매안심마을(신봉동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